



SARANG

## 시론 02

균형(balance)을 잡는 일

## 종합 03

사랑에서 \_ 끝끝내.  
건축사 Q&A

## 전북 지역 뉴스 04-05

전주한옥마을 야경에 운치를 더하다  
안방에서 즐기는 시간여행카페투어  
전라북도형 실리콘밸리 조성 노린다!

## 광주 지역 뉴스 06-07

제2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9월 16일까지 우수 건축작품 공모 접수 시작  
광주건축사회, 제1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회원 출품 작품 모집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

## 전남 지역 뉴스 08-09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은유의 장소'로 설계한다  
전라남도-中 산시성, '우정... 아름다운 미래 설계' 나서  
완도수목원 산림박물관 산림문화 체험장으로

## 설계경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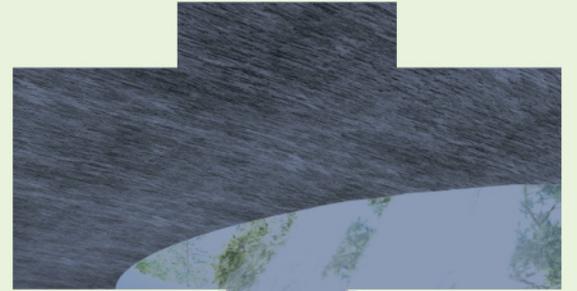
보성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 및 후관동 리모델링 설계용역

## 종합뉴스 11

건축물 관리·점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2022 녹색건축한마당', 10월 13일 코엑스에서 개최  
미래 스마트도시를 한눈에 31일부터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장

## 독자광장 12

세상사는 느낌 \_ 건축은 동결된 음악이다.  
한 편의 시 \_ 9월의 기도  
건축사 만평



#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2.09.154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균형(balance)을 잡는 일



**문창호** 논설위원 /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 건축사  
mchangho55@gmail.com

- 1978 서울대 건축과 졸업
- 1980 동 대학원 공학석사
- 1989 동 대학원 공학박사
- 1989-1995 순천대 건축과 교수
- 1995-2021 군산대 건축과 교수
- 2008-2010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
- 2016-2022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장
- 2003 완석루(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14 난재루(전북건축문화상 우수상)
- 2019 안향재(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들어가는 말

나의 생활신조는 균형 잡힌 삶이다. 매사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균형에는 정적(static) 균형과 동적(dynamic) 균형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균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는 있다. 평소 관심 있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균형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헌법에서의 균형

대한민국헌법에서 “균형”을 검색해보면, 헌법의 경제 부분에 “균형”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한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헌법의 관련 조문을 읽어보고 되새기면서 각종 정책을 입안/실행하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

균형적인 국가정책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인 주택 부족 문제, 세계 최하위 출산율 문제 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밀한 서울을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람과 일자리를 일부 빼내야 한다. 헌법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의 지역 간 균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새로운 정부도 지방화시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읽을 수 있다. 말로 그치지 않고 얼마나 실행력이 있게 추진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 국토의 균형발전

헌법에도 있지만, 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한 아젠다(agenda)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일부 지역만 발전해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 유럽, 특히 네덜란드의 도시들을 둘러보면 도시/농촌, 대도시/중소도시 간 질적인 격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지역의 산업 특성화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나머지 지역은 발전의 계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별생각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하게 구분해버리는 것을 보면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시각에서 답답하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배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특성의 지방과 비지방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부가 매년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보다 획기적인 발상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국가나 광역지방단체에서 새로운 기관 설립이나 이전 수요가 발생하면, 지역의 자연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제일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처럼 접근성/경제성을 배정의 제일 중요한 지표로 적용하면 대도시로의 집중이 가속되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요원해진다.

### 건축교육에서 균형

건축의 속성이 한가지 측면으로만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 잡힌 교육과 실행이 필요하다. 건축교육에서 설계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구조, 시공 등

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이 좋을까? 기술(technology)이 뒷받침되지 않는 좋은 설계가 가능할까는 의문이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학부 과정은 한계가 있어서 건축의 기본원리와 윤리를 가르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내가 재직했던 군산대 건축공학과는 설계 위주의 교육과정(5년제)보다는 종합적인 교육과정(4년제)을 선택하고,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upgrade)해나가고 있다.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졸업생들이 건축에서 균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축 실무에 기여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주거 건축에서 균형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신축되는 주거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이다. 과연 이런 아파트가 주민의 거주성과 커뮤니티 의식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아파트는 거주성보다는 경제성(기업의 이익)으로 기운 편향된 디자인이 아닌가 싶다. 우리 건축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거주성에 중점을 두되 경제성 측면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 같다. “공동”주택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발전된 아파트를 고대한다.

또한 아파트 일색의 주거 건축에서 벗어나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코하우징(co-housing), 서비스 하우스(service house)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균형 있게 지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단독주택에 거주한 지 10여 년이 되는데, 이제 아파트로 돌아갈 수 없다.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 넉넉한 천장고의 여유 있는 공간, 프라이버시와 적절한 이웃 관계, 맑은 공기와 함께 땅을 밟고, 사계절 화초와 채소를 만나는 정원과 텃밭 가꾸기, 새 소리에 새벽 잠을 깨고, 낙수 소리를 즐기고, 편리한 주차 등등 장점이 너무 많아서 소소한 단점은 덮어진다.

### 맺는말

작년 8월 말 30여 년의 대학교수 생활을 마쳤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10여 년 전 집을 지으면서 건축사사무소 공간도 확보해두었다. 오랜 고민 끝에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여 (주)건축사사무소 균형(Balance Architecture Studio)이라고 사무소 이름을 지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이름을 찾지 못했으나 국외에서는 미국의 “Balanced Architecture”를 비롯하여 호주와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이름을 볼 수 있었다. 이들 건축사사무소도 균형을 중요한 규범으로 여기고자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을 기원한다. 균형발전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건축 활동 및 일상생활을 해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아키엠

## K비대면바우처

## 새해대박!

## 최대 280만원지원

앱 하나로  
모든 감리서류!!

5인 동시사용

비상주  
상주  
해체  
석면까지

PDF  
도면 업로드  
마크업

**문의 02 3462 1336**  
 이기상 건축사직통 010-8276-6158  
 더 알아보기 [www.arkim.kr](http://www.arkim.kr)  
**놓치면 후회!!**

사랑에서 \_ 아흔세 번째

끝끝내.

'길거리에 있는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면 누가 좋을까. 참 이상한 꽃이라고 나무라면 누가 안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법륜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꽃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예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좋다. 못생겼다고 꽃을 탓하면 내 마음이 우울해진다. 누구의 문제인가. 꽃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난리다.

혹시 상대편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가장 가까운 존재는 보통 가족이다. 친구와 연인이다. 나에겐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건축도 포함된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란 유행가 가사가 있다. 가족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며, 건축을 대할 때. 그리고 이와 떨어져 홀로 있으면서 고독을 즐길 때도 그들을 생각한다. 나를 있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며 나태주 시인의 <끝끝내>라는 시를 떠올려본다.

너의 얼굴 바라봄이 반가움이다  
너의 목소리 들음이 고마움이다  
너의 눈빛 스침이 끝내 기쁨이다

끝끝내

너의 숨소리 듣고 네 옆에  
내가 있음이 그냥 행복이다  
이 세상 네가 살아 있음이  
나의 살아 있음이고 존재 이유다

상대방은 나를 투영한다. 거울과 같다. 내가 웃어야 그가 웃는다. 내 마음이 반갑고, 고맙고, 기쁠 때 그대로 그제 상대를 통해 나타난다. 시인은 말한다. '너로 인해서'라고... 그러나 '네 탓'이 아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인디언 격언에 이런 내용 있다고 한다. '인간은 마음 속에 두 마리 늑대를 키운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다. 이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인간이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다.

나는 내 마음속 늑대에게 매일 먹이를 주고 있는데, 어떤 늑대에게 주고 있는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오만, 편견, 우울감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배려, 이해,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착한 늑대에게 주었는가?

너의 얼굴, 너의 목소리, 너의 눈빛이 반갑고, 고맙고, 기쁠 때는 내가 내 속의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 같다. 꾸준히 착한 늑대에게만 먹이를 주어, 내 주변의 '너'라는 또 다른 내가 서로서로 각각 그들로 인해 행복해야겠다. "네 옆에 내가 있음이 그냥 행복이고, 이 세상 네가 살아 있음이 나의 살아 있음이고 존재 이유"가 되길 기원하며, '내가 내게' '내가 네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본다.

자문위원 \_ 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건축사 Q&A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관련 근거 :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감리자의 업무)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해체공사 감리대가기준

관련 근거 :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감리대가 기준)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은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 비율 또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
2. 비상주감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해체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비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4. 상주감리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 작품 모집 안내

- 출품자격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 출 품 료 : 없음
- 모집기간 : 상시
- 작품구분 : 준공 작품
- 소개지면 : 광주·전남·전북 지역 지면 회원작품 소개코너
- 제출자료 : 작품사진 JPG 파일 및 치수선 없는 도면 PDF, 설계개요 및 개념 한글파일, PDF 등
- 제출방법 : 광주건축사회 이메일(gjkira@empas.com)
- 문 의 : 건축문화사랑 신문 담당자 Tel. 062-521-0026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 박주현  
 부편집인 : 임현정, 육광돈, 임태형  
 자문위원 :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전담기자 : 김성완  
 논설위원 :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임용훈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 월간  
 등록일자 : 2010-01-25  
 편집및인쇄 :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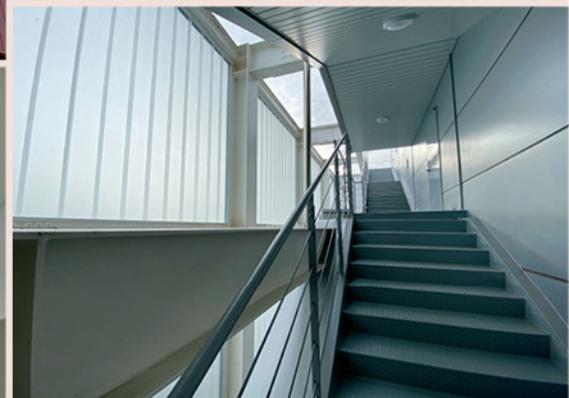
## 시간마을

육광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채담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3길 4 / Tel. 063-275-2051

높은 소나무가 많은 동네 노송동... 노송공원 속 기존 문화유산 건축물의 상부에 불가피하게 증축되어지는 지역 자활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은 천사마을을 내려다보는 새로운 소나무 언덕이 되고자 한다.

건축이 생성하는 프레임 속에 거대한 그림으로 저층 주거지의 마을과 어울려지며 도시 속에 내재된 자연과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여 이곳을 산책하는 모든 이에게 기억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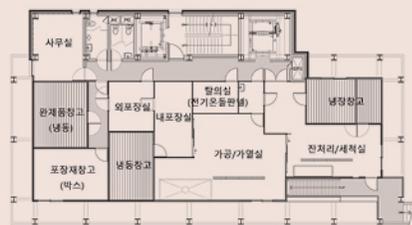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화3길 14-3 / 대지면적 : 1,822.00㎡ / 건축면적 : 363.57㎡ / 연면적 : 1,332.14㎡ / 규모 : 지상 4층  
주용도 : 제1,2층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제조업소) / 구조 : 철골구조(기존 건축물-조적조) / 주요 마감 : 치장벽돌, 우레탄패널, 베이스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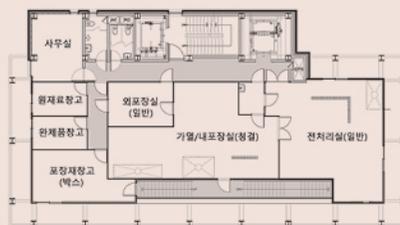
배치도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지상 4층 평면도

## 전주한옥마을 야경에 운치를 더하다

### 아름다운 한옥마을 야경을 안전하게 즐기는 밤 여행 활성화 기대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따뜻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한옥마을 문화시설 및 골목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한옥마을이 한층 아름다운 야경에 안전까지 더해지며 기존 낮 시간대 중심이었던 한옥마을 관광이 밤 시간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중심도로인 태조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골목길 등에는 전통등 등 멋스러운 조명시설을 추가해 전주한옥마을만의 고풍스러운 운치를 야간에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전주한옥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청사초롱등의 경우 상가 조명이 꺼진 후에는 음영구역이 생겨 어둡게 보였지만, 이번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인해 여행객과 시민들에게 음영 없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됐다.

부채문화관과 최명희문학관, 대사습청, 마루달, 완판본문화관, 창작예술공간 등

문화시설에도 외부조명이 설치돼 한옥 문화시설에 '빛의 따뜻함'을 더하게 됐다.

이외에도 전주시는 어둡고 외진 골목길에 대해서는 전통등과 벽부등을 달아 정감 있고 안전한 골목길로 만들었다.

허갑수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이 야간에도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일회성 개선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경관정비로 여행객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다시 찾고 싶은 한옥마을의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방에서 즐기는 시간여행카페투어

### 안방에서 군산의 시간여행카페를 온라인으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9월 2일 군산시간여행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군산과자조합, 소풍, 솔보 등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주, 고창, 부안 등 시간여행카페 23곳에 대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1일과 2일 이틀간 진행했다.

시간여행카페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인 군산·전주·고창·부안 4개 지역의 지역 연계 관광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해당 지역의 대표 관광지 곳곳에 총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군산에는 군산시간여행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군산과자조합, 소풍, 솔보가 2021년도부터 시간여행권역을 연계한 여행객들에게 관광정보 및 여행자 편의 제공 등 관광안내소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랜선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며 군산·전주·고창·부안의 대표 관광지에 있는 시간여행카페를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시간여행권역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랜선투어를 통해 체험한 군산시간여행카페로의 관심이 군산을 직접 방문해 군산시간여행마을로의 여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한편 군산시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군산시간여행마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전라북도형 실리콘밸리 조성 노린다

####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전라북도는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정책’에 발맞춰 시행하는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정책’은 지난 7월 19일 지역디지털정책협의회(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에서 발표한 사업으로, 디지털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기 위해 판교 테크노벨리에 준하는 디지털 혁신거점을 지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라북도는 과기정통부의 정책을 기회 삼아 지역의 열악한 디지털 생태계를 복원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SW기업을 도약시켜 디지털 신산업이 태동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할 복안이다.

특히 디지털 혁신거점과 합이 좋은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국정과제와도 적극 연계해 공모 대응에 내실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농생명 SW 융합, 농기계, 농생명 소재·식품 등 스마트 농업 전 주기에 걸친 연관산업 클러스터 및 우수한 연구 인프라가 있어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 개발과 지능형 데이터·인공지능 농생명 실증 연구거점으로서의 최적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데이터 기반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및 디지털융합 종합지원 집적단지 조성과 농생명 분야 융합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SW기업 사업화 지원 등의 디지털 혁신거점을 구축해 전라북도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농생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육성하고 이후 주력 산업 분야를 거쳐 전 산업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은 사업 수주를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타당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이다.

전라북도는 성공적인 용역을 위해 지역 관계기관, 대학, 시·군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에 필요한 인프라와 실증사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이번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북의 정보통신기술, SW 산업기반과 디지털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본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옛 대한방직 석면 건축물 철거 추진

#### 대한방직 폐공장 건물 철거... 장기간 방치된 석면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옛 대한방직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안을 토지 소유주와 논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옛 대한방직 폐건물이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및 석면 등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폐공장 건축물 철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전주시장도 지난 7월 4일 취임 후 첫 전체 간부회의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석면이 많은 대한방직 폐공장을 철거해 쾌적한 도시환

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축물 내 석면철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전주시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철거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석면 등 유해 물질이 사용된 12개 동을 포함한 폐공장 21개 동으로, 시는 주변 잡목 제거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철거 여부가 확정되면 토지 소유주는 올 연말까지 폐공장 철거를 위한 현지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공장 철거공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전주시는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중 부지 둘레 전 구간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설울타리의 경우에도 주변 경관 개선과 시정홍보 등을 위해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벽화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폐공장 철거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2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 2022년 어린이 집그리기 및 건축백일장 대회 개최



전라북도와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회장 박진만 / 전북건축사회 회장)가 공동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2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를 11월 1일

(화)부터 11월 6일(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 및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2 어린이 집그리기 대회 및 건축백일장 대회”를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간은 비대면으로 우편접수를 받아서 진행하였으나 금년인 2022년에는 9월 24일(토) 10시부터 15시까지 전라북도청 청사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북건축사회, ‘22년 하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10월 13일 개최 예정

#### 10월 13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진행 예정

전북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오는 10월 13일 전주 바울교회(바울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건축사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임에 따라, 내년 자격갱신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교육 시간이 부족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수강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 일정은 10월 13일(목)에 바울교회 바울센터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10시부터 12시까지 설계VE를 통한 건축물의 가치향상 기법(손명섭)이 진행될 예정이며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창호 주위 열교차단공법 및 누수 해결 방안(김웅회), 마지막 강의로는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알기 쉬운 세무회계 실무(김현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전북 회원동정

- **변경(사무소명)**
  - 안 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허브
- **변경(소재지)**
  - 박양열 건축사 / 송호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95, 304호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95, 301호
- **결혼**
  - 오성만 건축사 / 오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08월 27일(토)
- **부고**
  - 강태원 건축사 / 에이앤티(A&T)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8월 17일(수)
  - 안홍준 건축사 / (유)샘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8월 29일(월)
  - 이강수 건축사 / 이화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9월 5일(월)



**신덕리주택**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 4층  
 Tel. 062-945-5442



대지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301-3 / 대지면적 : 371㎡ / 건축면적 : 115.78㎡ / 연면적 : 183.33㎡ / 건폐율 : 31.29% / 용적률 : 49.55%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스틸하우스 / 주요마감 : STOMA감, THK49 로이삼중유리, 징크지붕

**제2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9월 16일까지 우수 건축작품 공모 접수 시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 대상



2022년 제2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작품모집이 시작됐다.

작품접수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모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A0 사이즈 작품판넬 포함)를 9월 5일부터 16일까지 건축사회 사무국(광주 북구 무등로 255, 4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메일로 하면 된다.

마감 후에는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직 공무원 등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주간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사회공공 부문·민간 부문·공동주택·단독주택·리모델링 5개 부문별로 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씩을 선정한다.

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공자에게는 상장, 건축주에는 동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건축상은 역대 공모전보다 출품 부문을 다양화했으며 상금도 상향돼 많은 우수작품 출품이 기대된다.

건축상 입상 작품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1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시 건축상 운영·심사위원장인 안길전 건축사(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광주시 건축상은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광주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권위 있는 건축상이다"며 "한국건축문화대상과 견줄만한 세분화된 부문으로 발전한 만큼 올해도 우수한 건축작품들이 대거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지난 1989년부터 건축사의 창작 의욕 고취와 건축 저변 확대 등 광주지역에서 우수 건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 건축사, 시공자,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35개 건축작품에 대해 시상을 실시해 광주광역시 건축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제1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회원 출품 작품 모집**  
 전 회원 대상 10월 7일까지 접수... 2020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 또는 계획 작품 대상

광주건축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제1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광주건축사 회원작품전에 출품한 작품을 모집공고했다.

회원작품전 출품 작품은 2020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 또는 계획 작품이 대상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JPEG, PSD 파일로 제출(규격 A1 사이즈 1판 / 594 × 841mm)하면 된다. 출품료는 무료이며, 제작된 모든 작품은 전시회 종료 후 찾아갈 수 있다. 출품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230897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1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된다.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  
 전 회원사에 철저한 건강관리 당부... 카드뉴스로 된 자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광주건축사회는 관광, 골프, 축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광주 회원 17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대회 첫째 날의 개회식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등 정치·경제·건축·문화계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이날, 최영집 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윤리강령 선포식, 건축계를 대표하는 류춘수 건축사의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되기도 하지만, 20여 년 만에 시행되는 건축사 의무가입으로 맞게 될 건축사의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대전환의 대회이기에 더욱 특별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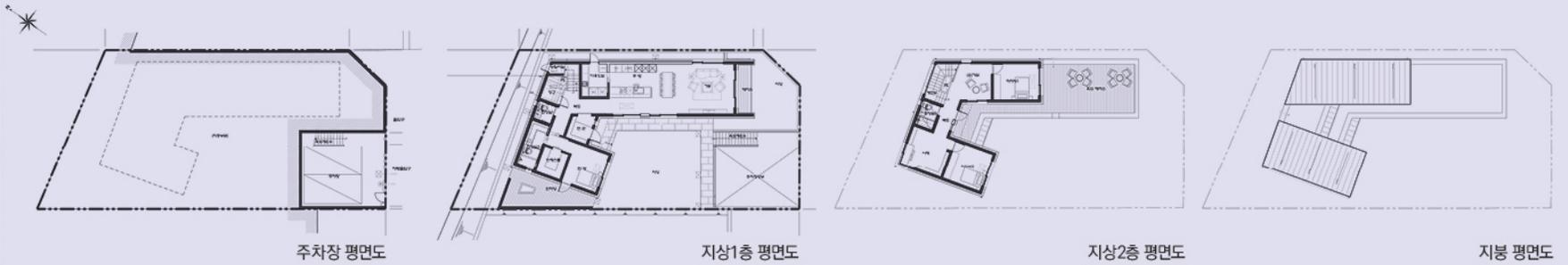
대회 2일 차인 2일에는 2014년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재난 건축의 대명사' 반 시게루의 특별강연과 노장 철학의 대가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되고 아시아 유일의 비경쟁 건축영화제인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최우수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건축이 대중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축을 하나의 문화로써 즐길 수 있는 '건축 골든벨'과 건축물 모형을 브릭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형 참여 프로그램인 '브릭 하우스'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하나 된 건축사. 변화에  더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지난 2월 3일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의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개최되는 첫 대회로서 협회에 신규 가입하는 건축사와 많은 건축인이 함께 '하나 된 건축사'로 화합을 이루는 대회로 마무리 지었다.



본 주택은 건축주 부부가 전원생활을 위해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여 지은 집이다. 임야를 개발한 주택단지에서도 높은 곳에 위치한 대지였으므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였다. 거실과 주방은 병렬로 배치하였지만 주방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거실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다르게 계획하였으며 1층은 현관과 계단을 중심으로 공유공간과 사유공간으로 또 1층과 2층을 경계로 부부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과 장식한 자녀들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하였다. 안방에서는 외부로 통하는 도어를 열고 나가면 부부를 위한 프라이빗한 데크 공간을, 거실과 주방 상부에는 스타일하우스임에도 과감하게 테라스를 위치하여 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외부 공간의 묘미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접목하여 저에너지하우스로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주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주거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광주건축사회, 제19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참가신청 진행**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 주제는 “가자 미래의 집으로!”로 광주 소재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저학년 1~3학년/고학년 4~6학년)으로 나누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는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광역시 청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이름, 학교명(유치원명), 학년/반/번호,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제19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 전국공모 진행**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반사진, 모바일사진 작품 구분 접수... 대상 100만 원



광주건축사회는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 작품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작품 공모 주제는 광주·전남 내에서 ‘일상 속의 건축·도시·공간이야기’로 일반사진과 모바일 사진으로 구분하여 접수 진행하고 있다.  
총상금 400만 원으로 등록비는 없으며 1인 2작품 이내로 일반사진은 11×14인치(약 27.94 × 35.56cm) 사이즈 사진과 모바일사진은 8 × 10인치(약 20.32 × 25.4cm) 이상 사이즈 사진을 출력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방문 및 우편접수(광주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4층) 광주건축사회)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업무대행건축사 추가 모집 공고**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24일간 추가 모집 중

2022년 8월 23일(화)부터 2022년 9월 16일(금)까지 24일간 「건축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의 2에 따라 업무대

행건축사 명부 작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업무대행건축사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 중이다. 단, 2021년 명부에 포함된 건축사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022년 명부에 자동적으로 포함 예정이다.

모집 자격으로는 공고마감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 자세한 내용은 시·자치구 홈페이지나 세움터,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31667번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대학교 건축학전공 제34회 건축전**  
예비졸업생 24명 참여... 9월 6일부터 8일까지 광주대학교 호심관 로비에서 진행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022 제34회 건축전’이 9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광주대학교 호심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34회째를 맞이한 건축전은 예비졸업생 24명이 참여했으며 이수영 학생이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수여하는 건축작품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건축전 참여 학생들은 7일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열리는 작품품평회를 통해 작품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 듣는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최시원 / 원(ONE)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호로 2-10, 2층
  - 정상훈 / 소담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13-2, 3층 301호
- **결혼**
  - 박형갑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토형 / 장남 결혼 - 09월 24일(토)
  - 강형선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 장녀 결혼 - 9월 24일(토)
- **부고**
  - 임도열 건축사 /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8월 12일(금)
  - 유승희 건축사 / (주)송호원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8월 29일(월)
  - 박은숙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마리별 / 부친상 - 8월 31일(수)
  - 조준호 건축사 / 일호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9월 5일(월)

##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은유의 장소'로 설계한다

국제공모서 독일 주현제 바우쿠스트 건축사무소 당선... 자연친화개발 돋보여



전라남도가 도민 염원을 담아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한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에서 독일 주현제 바우쿠스트(Hyunjeoo\_Baukunst) 건축사무소의 '은유의 장소'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은유의 장소'는 명료하고 강력하게 대지와 건물과의 관계를 표현한 설계안으로 평가받았다. 자연친화적으로 부지를 최소한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돋보였고 영산강변으로 펼쳐지는 경관 테크와 공간의 짜임새가 좋다.

2단계로 진행된 이번 설계공모는 1단계 공모에서 접수한 31개 작품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및 배치계획 등을 심사해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어 전라남도청에서 진행한 2단계 심사에서 작품별 발표와 심사위원 토론 및 투표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심사는 건축·조경·전시 분야의 국내 4명, 해외 3명의 저명한 교수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심사의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은유의 장소' 외에 2위는 네덜란드 씨아이이 건축사무소(de Architekten Cie)의 '시간 사이를 걷다(Walking Between Times)'를, 공동 3위는 국내 (주)신한종합 건축사사무소와 카타콤 건축사사무소(Catacombe Architects), 캐나다의 오투 건축사무소(Office Ou Ltd)가 각각 제출한 작품을 선정했다.

입상작에 대한 부상으로 당선 업체는 전라남도 의병박물관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2위는 4천만 원, 공동 3위는 각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입상작은 오는 9월 2일부터 전라남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전시되며 설계공모 누리집(www.jeonnam-archi.org)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우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진행,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설계 공모안이 확정된 만큼 2025년 개관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2023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의병의 날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라남도-중 산시성, '우정... 아름다운 미래 설계' 나서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 개막... 수출관광청소년 교류회 등 다채

전라남도는 2일 중국 산시성(山西省)과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는 교류 행사 개막식을 개최했다. 두 지역은 2007년 교류를 시작해 2017년 정식 자매결연을 하고 협력을 확대해왔다.

한중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개막식은 '지속되는 우정, 아름다운 미래 설계'라는 주제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린우(林武) 산시성 당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두 지역 소개, 한중 청소년 솜품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등을 하고 5주년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전라남도과 산시성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짧은 영상(솜품) 콘텐츠 총 43개를 상대지역 청소년이 직접 평가해 총 7개의 영상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

개막행사에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특별히 두 나라 외교부를 대표해 장창강(張承剛) 주광주중국총영사, 박상광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등이 함께했다.

린우 산시성 당서기는 "전라남도과 산시성은 그동안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발전을 추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함께 돕는 깊은 우정을 자랑했다"며 "앞으로 에너지 절감, 스마트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의 협력, 인문 교류를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산시성의 역동적 발전 성과를 축하하면서 "전라남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환경,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전라남도-산시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까지 수출상담회, 관광 홍보회, 청소년 교류회 등 분야별 교류회를 다양하게 개최한다. 또한 도민이 함께하도록 8일까지 전라남도청, 9일부터 20일까지 도립도서관에서 산시성 홍보 사진전을 여는 한편 유튜브를 제작해 으뜸전남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 완도수목원 산림박물관 산림문화 체험장으로

제2전시실 불가시황칠동백 등 난대림 중심 배치구성 등 새단장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박물관 특성화사업의 하나로 관람객의 산림문화 지식 습득이 용이하도록 제2전시실의 전시구성 등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시실 개편은 2009년

## 수덕정사

이정심, 김철우 건축사 / 개인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삼학로334번길 23-1  
Tel. 061-281-7885



대지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 대지면적 : 2,071㎡ / 건축면적 : 274.53㎡ / 연면적 : 274.53㎡ / 건폐율 : 13.26%  
용적율 : 13.26% /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 주요마감 : 점토벽돌, 압출성형시멘트판넬, 외단열도탈시스템

산림박물관 개관 이후 노후 박물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동안 학예연구를 통해 확보한 난대림의 역사기록 등 결과물을 새롭게 수록하고, 패널디자인과 전시배치를 최적의 상태로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전문전시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 사료 고증, 유관기관 자문을 마치고, 10월부터 구조물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람객은 12월이면 새롭게 개편된 제2전시실을 만나볼 수 있다.

새단장하는 제2전시실은 1부 난대림의 분포 현황, 2부 난대림 대표수종, 3부 난대림 속 생활유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2부에서는 난대림의 대표수종인 붉가시황칠동백나무의 역사적 기록을 소개한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대장군전 제작 및 사용 과정을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붉가시나무 숲생산 디오라마, 황칠나무 수액 채취 이미지패널, 황칠공예품 등도 배치할 계획이다.

난대림 속 생활유물 전시공간은 라인일리스트를 활용해 입체감이 있는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남도건축사회 교육위원회 개최

지난 8월 12일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 갤러리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8월 12일(금)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 갤러리에서 올해 하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일정과 2023년 건축사실무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반기 실무교육은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으로 그린리모델링의 개념과 설계기법(박병열)과 건축물 유지관리(박종호)로 각각 2과목을 실시하고, 2023년 실무교육계획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진행하여 전문교육 4과목, 윤리교육 1과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건축사회,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가

17개 시·도 건축사회 회원 5천여 명이 참석...

전라남도건축사회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난 9월 1일(목)부터 9월 3일(토)까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2022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건축사대회에는 순천, 여수, 목포, 광양, 나주 등 12개 지역건축사회에서



총 21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각 지역건축사회별로 대회 특별강연 및 실무교육 수강, 건축물 투어, 지역문화유산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참가일정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성황리에 대회 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윤경호 건축사 / 더존도시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1길 3-27, 2층 303호
- 엄기성 건축사 / (주)제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72, 301호
- 김종민 건축사 / 청림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31-1
- 안호영 건축사 / (유)어반후드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가길 4-5, 301호

#### •부고

- 임은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움 / 부친상 - 08월 11일(목)

## YJ | 주유정이앤지

### 지적확정측량 | 경계/분할/현황측량

공간정보관리법 제45조에 의거 지적측량 시장 개방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 지역은 일반지적측량업체에 신청 가능

대표 정허근 010-6342-51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223 T.062)944-5110 F.062)944-5118



“수덕정사”는 목포에서 신안군 압해도를 연결하는 압해대교의 끝자락에 위치한 사찰이다.  
도심형 사찰의 한계를 넘어 기존 전통 사찰의 공간적 위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신·구세대가 함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주문을 지나 수덕마당을 중심으로 법당과 요사채, 그리고 스님의 독립공간인 참선방 3개의 채나눔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성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 및 후관동 리모델링 설계용역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1-8
- 부지면적 : 21,154㎡
- 본관동 철거 : 3,152.44㎡

- 개축 : 2,530.00㎡
- 후관동 리모델링 : 1,399.32㎡

- 1등작 :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 2등작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1등작 정관성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 GREEN EDU CLUSTER

지역주민과 학교가 연결되고, 과거의 학교와 미래의 학교가 연결되고,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어 다양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만들어지는 보성의 지역거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STRATEGY-1** 자연연계  
NATURE [자연연계]

**STRATEGY-2** 안전한 경사접근  
UNIVERSAL [유니버설 접근]

**STRATEGY-3** LINK [연결]

**STRATEGY-4** ORGANIC CONNECTION [유기적 연계]

**STRATEGY-5** VARIABILITY [가변적 연계]

**본관동 후면미당 재조성**  
기존 습화되어 있는 후면미당의 탈바꿈을 위한 야외체육학습놀음마당과 연결되는 신축로 계획

**휴식을 위한 꽃가람 마당**  
부족한 외부공간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교직원/학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마당

**사계절 텃밭**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가능하며,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텃밭계획

**진입부 확장, 통한 진입마당**  
기존 보차분리의 진입부를 확장하여 명확한 보차분리 및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마당

**주차장 계획 재조성**  
기존 주차구역에 없는 공간과 같은 주차장에서 합리적인 주차장 재조성

####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존 보성초등학교 |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개축)

· 기존차량 및 보행접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차분리 계획  
· 비효율적인 기존주차장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 재조성 계획

####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외부공간

외부공간의 LINKATION(연결)  
· 외부공간의 연계를 통하여 학습환경의 다양성을 제공  
· 휴식/소통/능동적참여/창의적학습/지역개발 등이 가능한 외부공간

#### 학습영역과 지역개발영역의 명확한 조닝계획

· 학습 및 지역개발영역의 간결하고 명확한 조닝계획  
· 지역사회로 개방하여 교육커뮤니티 복합거점 장소 역할

## 2등작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 배치개념

### ▶ 배치개념 및 제안방향

#### 남향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사동계획

#### 외부특화공간 계획을 통한 생태학교

#### 개축교사동과 후관동 외부 특화공간 계획

### ▶ 접근계획

보행축 재설정을 통한 접근성 확보

### ▶ 시설 연계 계획

개축교사동과 존치건물간의 유기적 연계

### ▶ 외부공간 계획

#### 공간별 이용자계획

#### 복합커뮤니티 조성

#### 열린배치를 통한 범죄방지

### ▶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동선계획

- 1. 정형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형상별 설계
- 2. 눈송이계단 출입을 위한 매끄러운 경사
- 3. 장애인 E.V. 장애인 이동을 위한 열려배치
- 4. 점자 표지판 출입구 안내를 위한 점자 표지판 설치
- 5. 무단차 계획 접근성을 고려한 출입구 동력 제거
- 6. 차량통제기 이용시간의 차량 통제 및 안전 확보
- 7. 방범 CCTV 설치대 앞차 위해 CCTV를 곳곳에 설치

## 건축물 관리·점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 우수사례 확산 통한 점검기술 향상·건축물 안전 확보 기대

국도교통부는 건축물관리 점검기술 수준 제고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건축물 정기점검 우수 사례를 선정·확산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대해 시상을 추진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에 최초 개최한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는 7개 우수 점검사례를 선정하여 장관상 등을 시상하였으며, 우수 점검사례 공유 및 점검기관 간 경쟁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된다.

1차 심사는 제출된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과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점검방식의 준수, 점검내용의 성실도, 주요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2차 심사는 창의적인 점검방식과 점검 결과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방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점검기관이 제시한 유지관리 방안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경우 가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총 6개의 시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검기관은 향후 점검기관 지정 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상 점검사례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www.kbmsc.or.kr)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국도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점검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고 이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점검기관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 및 사용 가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2 녹색건축한마당’, 10월 13일 코엑스에서 개최

### 녹색건축, 이제 일상이 되다



국도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녹색건축한마당’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3층 E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녹색건축한마당은 녹색건축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학계가 모여 녹색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 해외 정책 등을 공유하고, 녹색건축의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전망하는 참여와 소통, 공감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녹색건축이 일부 신축 건물이나 기술적, 연구적인 부문에 머무르지 않고 건축의 대전제로 모든 국민이 일상

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녹색건축, 이제 일상이 되다. (Build Green, Live Green)”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술로서의 녹색건축을 다룰 예정이며, 녹색 건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첫날 13일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2022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시상식과 제2회 그린리모델링챌린지 시상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녹색건축 관련 세미나가 동시 진행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 사업 설명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놓칠 수 없는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 14일에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시행 20주년을 맞아 20년사 발간 기념 성과공유회가 개최되며, 인증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돼 녹색건축인증기관 및 관련 건축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는 녹색건축한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래 스마트도시를 한눈에 31일부터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장

### 한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 국내외 300여 도시·기업 참여 첨단 혁신 서비스·제품 전시

미래 스마트도시를 한눈에 31일부터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장

한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 국내외 300여 도시·기업 참여 첨단 혁신 서비스·제품 전시

국도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도시의 오늘과 내일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하였다.

2017년부터 시작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세계 20여 개국에서 300여 개 도시와 기업들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초연결로 만나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Connecting Together)」 슬로건 하에, 탄소중립과 친환경 이동, 도시회복력을 주요 주제로 하여 올해 엑스포의 주요 행사는 킨텍스 제1전시장 내 축구장 4배 규모의 면적으로 미래도시관, 도시회복력관, 탄소중립관, 스마트 모빌리티관 등 6개 주제별 전시관이 조성되어 진행되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관에서는 미래형 스마트홈, 자원순환 회수로봇, 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생활서비스를, 부산 국가시범도시관에서는 스마트물관리시스템, 도시행정 AR, 안전VR, AI 체육센터 등 우리 일상에서 펼쳐질 혁신기술을 미리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국내 15개 도시와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체코 등 다양한 해외 각국 도시들의 스마트 서비스와 제품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전시장 내 아고라 무대에서는 스마트도시 분야 중소기업들의 마케팅과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도교통부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되는 엑스포가 관람객들에게 미래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세계 스마트도시·기술을 선도하는 국제행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청와대 주변 탐방로 및 문화경관 조성사업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

### 북악산·청와대 연계한 도심 속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종로구의 ‘청와대 주변 탐방로 및 문화경관 조성사업’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은 의왕시의 ‘백운호수 주변 복합개발사업’에 돌아갔다.

국토대전은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물리적 공간

조성 사례를 발굴, 홍보하기 위해 국도교통부와 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주최하는 경관 분야 대표 행사로 올해 14년째를 맞이하였다.

올해 국토대전은 9개 부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83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국토경관에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작 23점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9월 2일(금) 오전 9시부터 엘타워(양재역)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도교통부 이원재 1차관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시상식 후에는 모빌리티 변화에 맞는 국토·경관 전략에 대한 전문가 포럼이 이어졌으며, 포럼에서는 자율자동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른 국토 경관의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발제 후 패널들과의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국도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올해 국토대전은 많은 작품이 응모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만큼 올해 수상작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디자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최고의 작품들이 국토대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널리 홍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행사장에서 전시할 예정이며, 수상작 및 행사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토대전 누리집(http://www.lcd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상사는 느낌 \_ 정가원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은 동결된 음악이다.

‘건축은 동결된 음악이다’ 괴테 외에도 슈레겔, 쇼펜하우어 등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정의한 말이다. 처음 이 말을 듣고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음악과 같은 예술로 간주했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음악과 건축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건축에서의 음악은 단순히 입면이 가지는 리듬감이었다. 하지만 <건축의 노래>라는 책을 통해 알게 된 건축에서 음악을 끌어다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첫 번째는 건축공간에 음악의 시간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건축과 음악의 공통재료인 수를 매개로 하여 비례체계를 공유하는 방법, 마지막은 음악의 악보, 구성요소와 원리, 표현기법들을 건축에 직접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음악과 건축의 연관성을 더욱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왜 동결된 음악이라고 표현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음악과 건축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과거 음악을 들어 보면 다양한 장르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분위기, 취향 등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종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건축물 등 그 시대의 특징과 분위기를 반영한 건축물이 많이 보인다.

예전에 여행을 다니면서 건축물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는 적이 있다. 건물을 보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내서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어 지금과는 다른 느낌과 디자인을 볼 수 있었고 마치 박물관에 온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멈춰있는 건축물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동결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건축사 만평

정원석 건축사 작  
디자인 건축사사무소(광주)/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9월의 기도

이제 9월이 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어느새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가을이 부르는 9월에는  
찬란한 태양의 열기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소서  
무겁고 우울한 마음  
근심 걱정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이 가을을 맞게 하소서  
뜰판에 이어가는 곡식들처럼  
갈기에 흔들거리는 코스모스처럼  
그렇게 흔들거리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곡식들이 알알이 이어가는  
9월이 되었으니  
마음속 소망이 이루어지고  
깊이 영결어가게 하소서  
또다시 돌아온 이 가을에  
우울하고 슬픈 일보다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사랑이 이어가는  
영롱한 가을이 되게 하소서.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역기소이앤씨(주)  
www.bs-base.co.kr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EcoSM 기반개량 · TerraCell 기반개량 · GeoCon 침하지반보강/복원  
마이크로파일 · 팽이기초 · 로타리파일(헬리컬) · 강관압입파일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광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광주 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젠트리닥터' 위원
- 광주YMCA 시민권변호인단 단원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영암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자문위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7, 402호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자재  
KIRA 2022.6 ~ 2025.5



행명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DK보드 X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2022.2.11)에 맞춰 개발한 심재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 0.039W/mk 나등급

심재 준불연 DK보드 검색

DK |주대 광 판 벨 |주디케이보드 |고객센터 1855-2240